

有錢 ... 형집행정지 교도소 밖으로 無錢 ... 지병앓은 60대 수감자 숨져

수감자 사망으로 본 '일그러진 사회'

일부 특권층들이 지병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아 교도소 문을 제 집 드나들 듯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지병이 있던 60대 수감자가 갑자기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60대는 보증을 잘못 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철쭉을 갈아엎은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뒤 항소, 지난 5월8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출소 한 달여를 앞두고 있었다.

7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저녁을 먹은 뒤 오후 7시경 수감자들과 TV를 보던 정모(65)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자 동료가 신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날 밤 10시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정씨는 고혈압 증세가 있는데도 교도소 업무로 인해 매일 1차례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환자였다. 게다가 그는 10여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한 뒤 머리가 흔들리면서 사리분별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정씨의 유족은 "추락사고 이후 주변 사람들 보증을 서주거나 낭비하면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모두 날렸는데, 계속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재물손괴에 대해 보상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 광주교도소의 초동대처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28일 오전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에 심어진 철쭉을 트랙터로 엷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정

빛보증으로 날린 토지 트랙터로 갈아엎어 재물손괴 혐의 법정구속
고혈압 등 지병 앓아도 변호사 구할 돈 없어 형집행정지 꿈도 못 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 선고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와 관련 "혼자서 법원에 나간 뒤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교도소에 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얼마 구속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했다.

유족들은 이후 항소 절차에 들어가 교도소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정씨에게 매주 면회를 가 약을 건네줬다. 정씨의 유족은 "약을 매번 챙겨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교도소에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교도소 측은 "정씨가 수감된 방에서 비상벨이 울리자 곧바로 직원이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5일 부검에서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는 점을 확인한 뒤 정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7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구호창고에서 광주아마추스봉사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에게 보낼 응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여수 돌산대교 해안 60대 남자 숨진 채 발견

여수 바닷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경 여수시 남산동 돌산대교 인근 해안에서 장모(6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경찰

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장씨의 목에는 반소매 티셔츠가 걸려 있었고 반라 상태였다. 또 몸에는 스크루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도 발견됐다. 해경은 장씨가 발견된 지점에서 3~4m 떨어진 곳에

서 장씨의 등산복 바지를 찾아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 여수지역 한 식당 CCTV에서 장씨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 이후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하는 등 정황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만취 운전 30대女 대형사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핸들 잡아

빗길 앞차 추돌 3명 사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여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10분경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여·33)씨의 SM5 승용차가 박모(67)씨

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 때문에 전복돼 빙글빙글 돌다가 박씨와 동승자 정모(68)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이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담양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술진 박씨 등은 이날 호남고속철도 5-3 구간(광산구 하남역) 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자 공사를 중단한 뒤 속도로 가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커브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던 박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총인비리 항소심 25명 모두 징역형

광주지법, 7명 법정구속 ... 공무원 1명은 뇌물혐의 무죄

광주지법 형사합소 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5일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7명, 교수 5명, 연구원 1명, 건설업체 관계자 12명 등 2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뇌물 전달 등을 지시한 대림산업·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 등 업체 임원 3명, 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간부급 공무원 3명과 교수 1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0만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광주시 이모 전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기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금호산업 전 직원 나모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인저감시설과 관련된 뇌물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원침 (8854) 김장두



처남 흥기 살해 50대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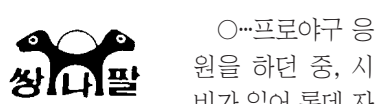
장흥경찰은 5일 처남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50분경 장흥군 안양면 자신의 집에서 처남 이모(51)씨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부부 문제를 거론한 처남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김종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프로야구 응원하다 상대 팬 뺨 때려



프로야구 응원하다 상대 팬 뺨 때려

이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모(34)씨는 6일 오후 8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무등 야구장 3루 관중석에서 원정 팀 롯데 팬 원모(여·3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것.

최씨는 이날 7회말 경기장 롯데 응원석에서 이범호 선수의 역전 안타에 환호성을 질렀는데, 원씨가 "왜 롯데 응원석에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말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大山 프리모남녀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